

# “올해 500명, 내년 1000명까지...서울대 경제인 네트워크 키우자”

회원 확대·네트워크 확장 논의  
2026 사업계획·예산안 위한 의결  
김종섭 본회 회장 5000만원 기부

사단법인 관악경제인회(회장 서병륜)가 2월 24일 정기총회를 열고 한 해 사업과 결산을 승인하는 한편, 새해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병륜(농공69) 관악경제인회장, 김종섭(사회사업66) 본회 회장, 이희범(전자67) 명예회장, 오세정(물리71) 전 모교 총장, 박신순(농업교육77) KS그룹 회장, 김종훈(건축69) 한미글로벌 회장, 변주선(영어교육60) 성모병원행정팀장, 이종열(경영69) 김앤장 고문 등 동문 60여 명이 참석했다.

현황 보고에서 의결권 회원 수가 공개되자, 서병륜 회장은 목표를 제시했다. “88명으로는 안 됩니다. 적어도 500명은 만들어야 합니다. 잘 되면 금년에 500명, 내년에 1000명까지 가야 합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5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안,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이 차례로 상정됐으며, 참석 회원들의 동의를 거쳐 모두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와 함께 조직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이사진 구성도 마무리됐다. 특히 서울대학교 피플랩을 이끌고 있는 이찬 교수가 인재경영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돼 주요 사업별 수행체계도 완비됨으로써 목적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수 있게 됐다.

행사 중에는 고객 기부자에 대한 감사패 수여도 진행됐다. 설립 당시 5억원의 기부한 김종섭 총동창회장과 2억원 기부 및 이후 지속적 후원을 이어나온 서병륜 회장 등이 감사패를 받았다. 김 회장은 현장에서 “새로운 출범을 축하하는 뜻에서 5천만 원을 추가로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회의 말미에는 “경제인의 공적 역할”이라는 화두도 올라왔다. “국내외 정세가 어수선할수록 믿을 것은 경제이며, 경제인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의 발언은 관악경제인회가 지향하는 정체성과 자연스럽게 맞아 떨어졌다. 결국 핵심은 “서울대경



2월 24일, 한국프레스센터 메화홀에서 열린 관악경제인회 정기총회에서 서병륜 관악경제인회장을 비롯한 동문 60여 명이 참석했다.

제인들이 무엇을 함께 만들어갈 것인가였다.

### 선순환 네트워크 구축

관악경제인회는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산하 경제인 직능 단체로 출범해, 서울대 출신 기업인·전문경영인·창업가·전문직 종사자를 잇는 네트워크로 성장해왔다. 이 조직이 내세우는 강점은 동문 경제인들이 쌓아온 경험과 자원을 모교와 사회에 환원하고, 그 과정에서 후배 세대를 키우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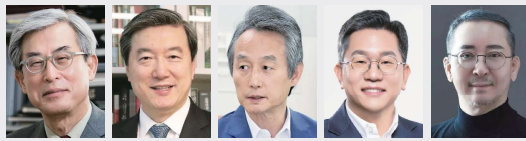
특히 관악경제인회는 대학 동문 조직 가운데 사단법인인 동시에 ‘기획재정부 공익법인 지정(지정기부금단체)’까지 받은 최초의이자 유일한 단체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운다. 이는 투명한 공익법인 체계를 갖겠다는 의미이자, 관악경제인회의 신뢰 기반을 설명한다. 기부가 제도적으로 인정되는 구조를 갖춘 만큼, 후원 참여도 보다 넓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세제 혜택 역시 중요한 포인트다. 개인과 법인 모두 세제상 인정 범위가 열려 있고, 이를 통해 ‘선의’가 ‘지속 가능한 참여’로 연결된다. 관악경제인회가 강조하는 지점은 ‘큰손 기부’만이 아니라 데 있다. 소액 후원도 의미 있게 설계할 수 있고, 참여 문턱을 낮추면서도 공익사업의 규모를 키워갈 수 있다.

또 하나의 강점은 ‘목적사업의 틀’ 안에서 기부금 사용의 대상과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학교와 재학생 지원은 물론이고, 조직이 설정한 공익 목적사업과 연동해 사회적

### 임원단

|       |                            |
|-------|----------------------------|
| 회장    | 서병륜(농공69) 로지스그룹 회장         |
| 상임부회장 | 이상현(전자85) KCC정보통신회장        |
| 상임부회장 | 송우엽(체육교육79) 서울대총동창회 사무총장   |
| 이사    | 곽수근(경영73)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 이사    | 주영섭(기계74)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 |
| 이사    | 안병욱(해양80)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특임교수 |
| 이사    | 김종호(경제76) (사)관악경제인회 사무총장   |
| 감사    | 김종훈(건축69) 한미글로벌(주) 회장      |
| 감사    | 이정희(경영79) 전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회장  |



### 각 분과위원장

|                 |                                  |
|-----------------|----------------------------------|
| 스타트업협신위원회 공동위원장 | 곽수근(경영73)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 스타트업협신위원회 공동위원장 | 주영섭(기계74)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응용공학과 특임교수 |
| ESG환경위원회 위원장    | 안병욱(해양80)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특임교수       |
| 인재경영위원회 위원장     | 이 찬 서울대 첨단융합학부 교수                |
| 회원관리위원회 위원장     | 권영수(경영75) LG에너지솔루션 고문            |

### 관악경제인회 연표

|               |                                 |
|---------------|---------------------------------|
| 2022년 3월 3일   | 서울대 출신 경제인 모임 관악경제인회 출범         |
| 2022년 8월 26일  | 관악경제인회 창립총회서 초대 회장에 이부섭 동문 선출   |
| 2023년 7월 20일  | 제1회 조찬포럼 개최                     |
| 2023년 11월 2일  | 제1회 스타트업포럼 개최                   |
| 2025년 2월 17일  | 제2대 관악경제인회 회장으로 서병륜 동문 선출       |
| 2025년 5월 8일   | 사단법인 설립 발기인 총회 개최               |
| 2025년 6월 5일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사단법인 관악경제인회’ 설립 인가  |
| 2025년 9월 30일  | 기획재정부로부터 기부금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공익법인 지정 |
| 2025년 11월 4일  | 제1차 ESG경영포럼 개최                  |
| 2025년 11월 14일 | 반기문재단과 ‘반기문환경상’ 제정 공동 합의        |
| 2025년 12월 18일 | 서울시 관악구청과 사회공헌사업 추진             |

공제를 폭넓게 품을 수 있다. 서울대 총동창회 산하 경제인 직능단체로서 단과대학 동창회들과 협력하며 공익사업을 함께 키워갈 수 있다는 점도 확장성의 중요한 축이다.

### 창업·ESG·인재·사회공헌 활동

관악경제인회의 사업 방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창업·지속가능·인재·공헌’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다. 선배 동문과 예비 창업가를 잇는 ‘스타트업협신조합포럼’과 ‘스타트업·벤처·투자기업 교류회’, 창업장학금지원은 창업 생태계의 연결 밀도를 높이고, 기업현장의 경험을 다음 세대로 흘러보내는 통로가 된다.

지속가능경영 영역에서는 ‘ESG경영위원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반기문재단과 함께 반기문(외교63) 전 유엔 사무총장의 이름을 딴 ‘반기문 환경상’을 상징 사업으로 삼는다. 이를 통해 환경경영과 기후 대응 실천을 주요 의제로 끌어올리고 있다. 상을 수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과 학생이 함께 참여해 실천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장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인재경영 역시 관악경제인회가 힘을 주는 분야다. 이찬 서울대 피플랩 교수와 인사·채용 정보와 인재상에 대한 유튜브를 제작하며, 동문 기업과 재학생이 만나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를 묻고 답하는 장을 만들고 있다. 조직 문화, 인재 기준, 리더십의 철학이 공유될 때 후배 세대는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고, 기업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다. 후배양성을 ‘좋은 말’로만 두지 않고, 실제 만남과 연결로 구현하려는 의지가 드러난다.

사회공헌은 이 모든 흐름을 ‘공적 역할’로 묶어주는 매듭이다. 지역 청소년과 장학 사업은 동문 경제인의 성과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길을 열고, 조직이 공익법인으로서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만든다. 결국 관악경제인회가 말하는 네트워크는 ‘사업 기회’만을 뜻하지 않는다. 서로의 성취를 존중하고, 그 성취를 사회로 확장하는 방식까지 포함하는 네트워킹이다.

회원 가입 문의 : 02-6730-7100

## 서병륜 회장, 관악경제인회 1년 만에 사단법인화·기부금 지정단체로 발전 시켜

### 3억원 기부, 반기문환경상도 제정

“작년 2월 회장으로 취임할 때만 해도 다소 막막한 느낌이었습니다만, 1년이 지난 오늘에는 우리 관악경제인회의 건실한 발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된 것 같아 의미가 깊습니다.”

서병륜(농공69·사진) 관악경제인회 회장이 2026년 정기총회에서 취임 1년을 맞은 소회를 밝혔다. 서 회장 체제 출범 이후 관악경제인회는 1년 만에 조직의 사단법인화와 공익법인 지정을 동시에 완료하며, 단순 친목 단계를 넘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공식 기구로 탈바

꿈했다.

연 매출 3조원에 육박하는 로지스그룹을 이끄는 서 회장은 40여 년 팔레트와 컨테이너 기반의 공동물류시스템을 도입해 국내 물류 비용 절감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이끈 ‘물류 개척자’다. 2018년 한국물류대상은 탐산업훈장을 수훈했으며, 과거 6년간 농생대총동창회장을 역임하며 ‘아그로푸드 플랫폼’을 구축해 동문들에게 인생 이모작 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이러한 조직 관리 역량은 관악경제인회 체질 개선으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그는 또 지난 20년간 모교 발전을 위해 상록문화재단·교육연구재단·관악회 등에 총 26억원을 기부해왔다.

관악경제인회는 지난해 4월 별도 사무국을 설치한 데 이어, 6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다. 9월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기부금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며 법적 틀을 완성했다.

서 회장은 “우리나라 대학 동문 모임 중에서 사단법인인면서 공익법인까지 지정된 곳은 관악경제인회 최초이자

유일하다”며 조직의 성과를 강조했다.

조직 기반을 확립한 관악경제인회는 올해 3대 목적사업(스타트업 및 창업 지원, ESG 환경경영 지원, 인재경영 지원)을 전면적으로 가동한다.

사업의 체계적 실행을 위해 곽수근, 주영섭, 안병욱, 이찬 교수를 각각 위원장으로 하는 3대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고문이 이끄는 회원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켜 공익단체에 부합하는 동문 회원의 발굴과 검증 절차를 정립했다.

서 회장은 “지난해가 조직 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원년이었던, 금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3대 목적사업을 보다 내실화하고 신규 사업이 잘 뿌리 내리도록 하겠다”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사업들도 제도 에 온다. ‘반기문환경상’을 올해 처음 시상하며, 인재경영 유튜브 제작 사업도 새로운 모델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서 회장은 “관악경제인회가 회원들과 힘을 합쳐 모교의 위상에 걸맞은 모범적인 대학 동문 조직으로 발전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공익법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다짐하며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부를 당부했다.